

# 휴전에도 긴장감 팽팽... 호르무즈 통제권 기사움

### 美 '무허가 선박 2척 나포... 1척은 공격으로 해안 좌초' 美 해상차단·이란 합정 억류 대응... 대치 격화일로 확전 부담 속 여전한 신경전... 무력 충돌 가능성 상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한을 정하지 않고 휴전을 선언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기사움은 가열되는 분위기다. 대이란 해상봉쇄를 유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나포를 동원한 사실상의 무력 시위로 대응,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부의 이견에,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상봉쇄에 협상 교착의 책임을 돌리는 가운데 외교적 출구를 좁혀잡기 어려운 불안한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연장을 선언한 다음날인 22일(현지 시간) 오후까지 이란 전쟁에 대해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여성 시위자 8명이 자신의 요청 덕분에 처형을 면하게 됐다는 주장을 하기는 했으나 주로 미국 국내 정치 사안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란 전쟁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여러 언론사와 단편적인 인터뷰를 하며 조각조각난 정보를 제공하던 것도 이날은 거의 하지 않았다.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료 시한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3~5일을 염두에 두고 휴전을 연장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캐럴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해당 보도를 부인하며 기한이 설정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선언으로 대이란 공격이 전면 재개되는 상황은 일단 피하게 됐으나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싼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팽팽한 상황이다.

공격 재개에 부담을 느껴 휴전 연장을 선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하루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압박하는 차원에서 대이란 해상봉쇄 고수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유가상승의 압박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출구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은 휴전 만료 시한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압박을 완화하면 이란이 협상을 질질 끌 위험이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밀히 조언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상봉쇄 고수를 비난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3척에 발포하고 2척을 나포했다.

휴전을 연장하겠다는 호르무즈 해협봉쇄를 풀 수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일종의 무력시위를 벌인 셈이다.

이란의 종전 협상 대표단장을 맡고 있는 모하마드 비게르 갈리바르 의회 의장은 미국의 해상봉쇄로 인해 휴전이 무의미해진 것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도 불가능했다고 비판했다. 해상봉쇄 해제를 압박한 것이다.

이러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칸 대통령이 "이란은 언제나 대화와 합의를 환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미국의 해상봉쇄와 위협이 협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란은 협상 의향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교착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린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연장을 선언하며 '이란이 내부 이견을 정리해 통일된 제안을 내고 협상이 종결될 때까지'로 만료 시한을 설정한 상황에서 조만간 미국과 이란 사이에 협상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칫하면 선박 나포와 같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조치나 충돌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미국도 이란도 확전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당분간은 가급적 수위를 조절하는 선에서 중재국 파키스탄을 사이에 둔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주 가까이 이란전이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주일여 뒤인 5월1일이면 의회의 승인 없이 미 대통령이 전쟁을 할 수 있



는 '60일'의 시한이 만료된다는 점도 변수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미군을 장기 분병에 투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승인 없이 개입한 경우 60일 이내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 최대 30일의 추가 기간이 허용된다. 대이란 군사작전은 2월28일에 시작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3월2일에 의회에 통보했기 때문에 60일은 5월1일로 종료된다.

야당인 민주당은 그간 전쟁권한법을 적용해 이란 전쟁을 중단시키려 했지만 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그러나 5월1일 이후에도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엄호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공화당에서는 중간선거에 미칠 타격을 우려해 30일 연장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60일 기한을 무시할 가능성도 크다. 이미 2011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60일 기한을 넘겨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계속한 전례가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 美 '궤멸' 주장과 달리... "혁수대 전력 견제"

이란의 군사 역량을 이미 궤멸했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개적 주장과 달리,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란이 상당한 수준의 전력을 유지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미국 CBS 뉴스가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달 8일 휴전이 시작될 당시 이란의 탄도 미사일 재고와 관련 발사 시스템의 약 절반이 무사한 상태였다는 게 관련 정보에 정통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 3명의 설명이라고 CBS 뉴스는 전했다. 이 취재원들은 아울러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해군 부문 전력 중 약 60%가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고속 공격정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협상을 위해 일방적인 휴전 연장을 발표한 직후인 22일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 IRGC 해군 선박들이 상선들에 발포한 후 이 상선들을 나포하기도 했다.

이란의 공군력 역시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약 3분의 2는 여전히 작전할 수 있는 상태다.

이는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이란의 군사 역량이 사실상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22일 이란 국영방송이 배포한 이란 군인들의 호르무즈 해협통과 컨테이너선 나포 장면 캡처 화면. 이란 국영방송 IRIB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8일 브리핑에서 "장대한 분노 작전은 이란군을 궤멸시키고 향후 수년간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든 역사적 승리"라고 자평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의 공격이 주로 이란의 정규 해군에 집중됐고, 비대칭 전력을 담당하는 혁수비대 해군의 소형 함정들은 피해를 면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게 미국 정보 당국자들의 분석이다.

국방부 국방정보국(DIA) 국장인 제임스 애덤스 해병대 중장은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정보·특수작전 소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이란은 전력 저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대 미군과 파트너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수천 발의 미사일과 편도 공격 자폭 드론(UAV)을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 墨 미인대회 우승자, 부촌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미인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여성이 멕시코시티 부촌 풀랑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현지 시간) 멕시코 일간 엘우니베르살과 레포르마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멕시코시티 미겔 이달고 지구 풀랑코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전직 모델로 미인대회의 지역 예선인 '미스 틴 유니버스 바하 칼리포르니아' 우승자인 케롤리나 플로레스 고메즈(사진)라고 알려졌다. 고인의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아내와 다투다 총을 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뒤에 멕시코시티 검찰청에 신고했으며 사건 당시에는 8개월 된 아들과 집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토종 참돔 전문 브랜드 옷이랑 대표 김종규입니다. 평생 함께할 수 있는 건강식품을 만들겠습니다. 믿고 드셔보세요.

# 옷이랑 흑염소는 식육추출가공식품 입니다!

## 일반 저가형 추출가공식품과 다릅니다.

### 흑염소진액 구매시 반드시! 식육추출가공식품인지 확인하세요!

● 깨끗한 자연에서 자란 100% 국산 흑염소  
은 제천 바이오밸리에 위치한 생산공장에서 제조합니다. 무쇠 유압자동부음술, 고온에서 원료를 말리는 건조기, 혼합기와 농축탱크, 대용량 추출기, RO수(水)제조기, 자외선살균탱크 외에 다양한 장비들로 만듭니다.  
참돔이 들어가 옷 오름까봐 걱정이 되시는 지요. 옷진의 주성분이 우루시올입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국내 참돔 전문브랜드 옷이랑 제품에는 우루시올이 단 한방울도 없습니다. (참돔발효진액의 제조방법) 등에 관한 특허

기술만 총 4개를 보유한 기업으로 미생물 발효와 특허받은 발효법으로 이중 삼중으로 안전(安全)을 기업 철칙으로 여기며 생산하고 있습니다.  
참돔 전문 브랜드 옷이랑은 (옷이랑 흑염소)를 부담없는 가격에 공급합니다.

제조원: 농업법인(주)옷가네 / 충북 제천시 바이오밸리로 143  
판매원: (주)옷이랑 /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62길 1, 남신빌딩 4F

### “진짜” 흑염소 육골이 들어가야 식육추출가공식품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감사 할인 이벤트

※제품구입시 자세한 제품 정보가 수록된 잡지를 보내드립니다. 문의전화 : 1588-6232 농협 301-0280-1454-01 주식회사 옷가네 무료배송 / 신용카드 구입가능(할부가능) / 24시간전문가능